

저무는 '미술의 해' 아쉬운듯 '불심 전시회' 다채롭다

'미술의 해'가 저무는 가운데 불심과 예술혼이 가득 담긴 전시회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어느해보다 불교미술이 풍성하게 화랑가를 장식했던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불자들의 발길을 끌는 전시회장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전시회는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 김희자전 '허와 빛 이미지' 강조 신작 돋보여

■ 이진형전 '부처님 열반상' 등 목조각품 소개

■ 김부견전 '부처님 시집가는 날' 등 신심 물씬

■ 페르시아어... 지중해·아랍권 문화 흔적 볼거리

■ 황금백자전 '광주 분원요'서 빛은 도자기 80점

■ 안성금전 12·12쿠테타 표현 설치작품 '눈길'

■ 여성미술전 불교 향기 가득한 중견화가 작품

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씨의 전시회는 특유의 여백 따내기와 그림자 처리가 돋보이는 작품에서 설치작품까지 다양한 메뉴로 구성돼 있다. '우울상자 짓을 붙드는 전시회장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전시회는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작년에 '실체와 비실체'를 주제로 전시회를 가져 주목받았던 김희자씨가 올해는 허와 빛의 이미지들을 강조한 신작들로 전시회를 갖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내가 감하다' '인연을 따라' 등과 '망상'은 나를 사랑하는 집착의 탓에 걸려 낚시 못한다' 등 작품들은 김씨가 고뇌하는 예술혼의 근거가 바로 인식의 제8 아뢰아식에까지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계 김씨의 작품이 주는 가장 중요한 화열이다.

■ 페르시아어 지중해·아랍권 문화 흔적 볼거리

실크로드 미술기행전의 세번째 기획인 이 전시는 동아그룹이 운영하는 동아갤러리에서 15일~20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중국과 인도 타를라미칸 사막과 히말라야 산맥 일대의 풍광에 이어 지중해와 아랍문화권 지역의 문화 흔적을 예술의 눈으로 본 작가들의 작품이 다채롭게 내걸린다. 이월중, 강대철, 김봉준, 이석주씨 등 불자 화가들이 대거 동참했다.

■ 분원요 황금백자전 경기도 광주군 남종면 삼성리의 분원요(分院窯)에서 황금백자(발명특허 077859호)를 빚어 온 은정식씨의 도자기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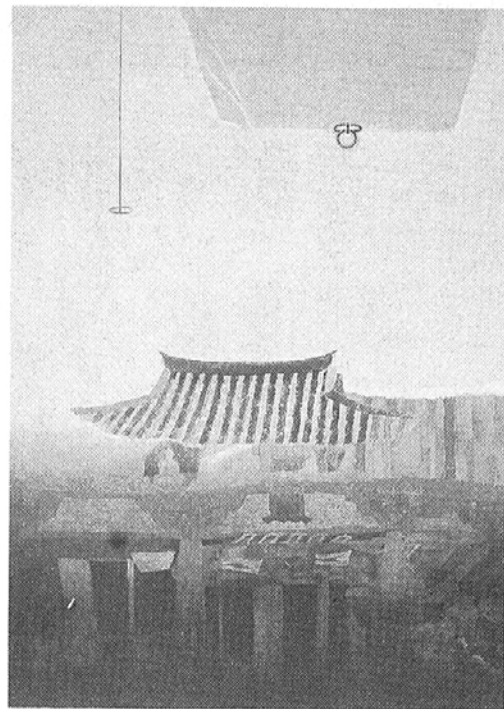
은정식씨는 19일~31일까지 명동 롯데백화점 화랑에서 전통 백자기법과 황금 진사, 철사 기법의 절묘한 양태부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조선시대에 왕궁에 도기를 납품했던 분원터를 다시 일군 은씨는 '백자양각당초문표현' 등 80여점의 황금백자들을 선보인다.

■ 안성금 '붓의 소리' 전 안씨가 미술의 해를 마감하며 마련한 이번 기획전은 전국을 뒤돌고 있는 12·12 군사쿠테타를 자신의 독특한 설치작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안씨는 그간에 보여 준 부처님 좌상과 평면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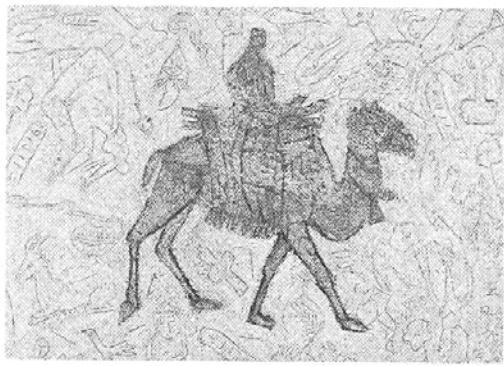
등을 통해 '부처님의 소리'를 형상화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에 새로 조성한 설치미술은 80평 전시공간을 가득채운 소리 풍으로 구성된 것.

제목이 '12·12'인 이 설치작품은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게 구성돼 있어 부처님의 소리와 우리시대 역사적 죄악의 소리를 모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 한국여성미술전 13일~31일까지 일정으로 서



◇ '95 한국여성미술제에 출품된 이화지씨의 '부처님'.



◇ '페르시아어...'에 출품된 이월중씨의 '생황속에서-中道'.

불심시심 <40>

바다 가로지른 기러기

遠風漁笛一聲長 한 곡조 어부의 피리 먼 바람에 실려 (원풍어적일성장)
萬里江天向夕涼 만리의 강 하늘 석양때라 서늘하다 (만리강천향석량)
驚起白沙汀雁雁 백사장이 기러기 놀다 일으켜 (경기백사정반안)
海門斜處兩三行 바다 어구 빗겨 건너는 두서너 행렬 (해문사료양삼행)

지난 번에 취미대사가 속 사들과 격의없는 사림이 있어 자신의 명성은 물론이고 불교 자체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것이 바로 당시 스님들의 시가 세속의 선비들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는 반증이다.

위에 쓴 시는 그러한 논의의 자료로 취해 본 취미대사의 시이다. 시의 제목은 '강가에서 들리는 피리(江上聞笛)'이다. 시의 제목에서 보듯이 피리소리를 듣고 짓는다. 귀로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경치로 그리고 있다. 한 쪽의 산수화를 보는 듯하다. 만바람이라 하였으니 가까이에서 들리는 피리소리가 아니다. 먼 거리란 상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피리소리를 듣고 머리 속으로 그리는 풍경이다. 그러기에 소리는 길다. 이것이 어부의 곡조이니 강이 연상되었다. 석양이 가까워지는 싸늘한 풍경이다. 귀로 소리를 듣고는 싸늘한 촉감을 느낀다. 청각을 촉각으로 바꾸었다.

이 싸늘한 저녁 피리소리에 놀란 한때의 기러기 무리는 비상할 것이니 강 어구 저 먼 곳으로 한 점 한 점 이어지는 행렬이 보이는 듯하다. 앞에서 느꼈던 촉감의 싸늘함에 이제는 시각의 현실적 풍경으로 바뀌어 하늘로 비상하고 있다. 그것도 저 바다 어구를 가로 지르는 사산의 빛금으로 시원하게 펼쳐져 있다. 이 시는 이렇듯 선과 선으로 교차되는 멋진 구도를 가졌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들리는 피리소리는 옆으로 굽는 수평의 선, 강하늘로 있는 석양의 수직선, 하늘로 날라 강을 가로질러 사산을 굽는 기러기의 행렬, 상하 좌우로 선을 굽듯이 펼쳐진 풍경이다. 시의 호흡 자체도 백사장에 내리는 기러기처럼 쭉 흘러 내린다. 붓끝이나 호흡이 멈춤없이 유유 자적하다. 이 또한 스님의 막힘 없는 마음자리에서 빚어지는 풍경이라 하여 무방한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조각가 박찬갑씨가 덴마크 정부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받게 됐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이 EU 15개국에 선정하는 90년 문화의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와 관련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일어난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데 제가 독일의 워커와 타일만 두 작가와 함께 초청된 것입니다."

내년 4월부터 열릴 '오픈



덴마크 문예진흥기금 받은 박찬갑씨

"양국 예술교류 공로 인정"

내년 4월 코펜하겐문화제 초청받아

바이 코펜하겐전'에 참가할 박씨는 노다다미술관에서 기획전을 갖게 된다. 독일의 두 조각가는 통일이후 독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박씨는 분단 한반도의 아픔을 각각 조각과 행위예술로 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덴마크의 문예진흥기금은 이 행사 참가를 위한 노다다미술관의 지원금과는 달리 그간 한국과 덴마크의 예술교류에 공헌한 공로로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사회주의 정서가 강한 덴마크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적 사유로 현실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형태의 조각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어 두 나라 예술교류에 불자들의 보다 넓은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13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서울·코펜하겐전을 서울에서 열었으며 9월2일부터 10일까지는 덴마크 오후스에서 'DMZ·한소리' 이벤트를 개최했다.

<태>

■ 이진형 불교조각전 30여년간 전통불교조각에 심혈을 기울여온 이진형씨의 불교조각전은 19일~20일까지의 일정으로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1전시실에서 열린다. '부처님 열반상' 등 사실성이 독특하게 강조된 목조각 작품들이 지난 10월 서울전에 이어 소개된다.

■ 김부견 천불천탑 꿈전 전주에서 활동중인 김씨의 아홉번째 개인전은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에서 받은 예찬들을 평면으로 구상한 신작들로 이뤄진다. 일정은 15일~21일이며 전주 열화당에서 불자들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듯' '부처님 시집가는 날' 등 '부처님 세상 엮이기'의 단면을 '부처님 세상구기'의 열연으로 승화시켜 내고 있는

■ 안성금 '붓의 소리' 전 안씨가 미술의 해를 마감하며 마련한 이번 기획전은 전국을 뒤돌고 있는 12·12 군사쿠테타를 자신의 독특한 설치작업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안씨는 그간에 보여 준 부처님 좌상과 평면작업

* 전통염색법 보급 앞장 박윤신씨 *

내년 가을에는 천연염료를 사용해 만든 승복을 보게 된다.

"최첨단, 신기술, 고문명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의 눈길이 푸근함과 깊이가 있는 자연의 색으로 향하는 것은 바로 '본연의 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다."

지난 12일 월간 <아름다운 우리옷> 창간 7주년 기념 세미



내에 초침매 천연염료의 매력과 순수성을 상세히 소개한 박윤신씨(천연염료회화가).

박씨는 "색은 인간의 심성을 다스린다"고 믿는다. 그 믿음은 20여년의 불교공부를 통한 '자아 찾기' 노력으로 얻은 신뢰와도 상통한다.

박씨는 신앙과 더하면 더할 수록 깊어지는 자연의 색, 전통의 빛깔에 대한 믿음을 통해 승복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승복을 만들어보고자 오배자, 먹 등을 이용해 30가지 이상의 회색샘들을 만들어 봤어요. 그 샘플들을 이용해 스님들의 복식을 한층 격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씨는 내년 8월에 개최될 한국전통공예대전에 승복을 출품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필>

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에서는 정경연, 장삼의, 이화자, 오숙례, 김인순, 신산옥씨 등 중견여류화가들의 불교향기 가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미 본지를 통해 소개된 이근후박사의 경주남산석불사전(14~20일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도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임연태·도필선 기자

세계와의 승부- 1위 회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해내야 할 증권의 세계화, 세계와의 경쟁-
국내 NO.1의 사명감과 저력으로 대우증권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 최대의 해외 영업망과 정보망을 구축한 대우증권-
고객과 더불어 세계의 큰 산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대우증권
대우경제연구소
대우투자자문